

世界 資源確保競爭을 부추기는 中國과 印度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네트워크산업연구단 연구위원 / 박정순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하에 해외 유전개발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관심을 끄는 점은 양국 공히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소위 틈새시장 물색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투자비용이 적고 투자협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손실의 발생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게 된 배경, 전략적 관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국의 경우를 보면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석유안보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석유수요는 6.38mb/d(백만배럴/일)로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원유수입은 2.42mb/d로서 2002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영석유회사(NOCs)와 함께 공급선 다변화, 석유외교 강화, 석유전략비축, 수요저감정책, 대체연료모색 등 석유안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밖에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을 통하여 2008년까지 중국 동부 연안 4개 지역에 총 비축용량 1억 배럴(1400만

톤, 소비기준 35일분에 상당) 규모의 전략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90일분 비축을 달성한다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해외석유자산 매입과 쌍무적 석유거래(bilateral deals)이다.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외국지분매입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국내 산유량이 수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 둘째, 전략적 합종연횡에 의한 고립(strategic containment or encirclement)에 대한 우려. 셋째, 공급부족과 공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세계적 고유가 상황이 장기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등이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국내 석유생산이 지난 10년간 약 650kb/d(천배럴/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는 1990년에 석유수요의 70%를 국내 생산을 통하여 충족할 수 있었지만, 2004년에는 오히려 국내 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인도의 석유수요 증가는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석유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요증가가 지속되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2030년경이면 석유 수입 의존도가 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석유 수입 의존도 증가가 인도가 석유공급원 확보와 해외 석유부문 투자에 주력하는 이유다. 더욱이 인도의 석유 수입선은 중동·사우디 60%, 나이지리아 15% 등 특정 지역 편중되어 있어서 이같이 협소한 원유 공급기반 또한 인도가 석유공급안보를 우려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인도의 국영 석유회사를 비롯한 석유·가스기업들이 최근 3년간 세계 E&P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 특히 국영 석유회사 ONGC/OVL은 해외 석유·가스사업 참여를 공격적으로 추진, 러시아 사할린-1 프로젝트 자산의 20%를 취득하고 이란, 이라크, 미얀마, 수단, 리비아, 시리아, 호주, 아이보리해안 등 10여개 국가에서 13건의 이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에서 채산성을 가진 것은 베트남(가스), 수단(석유)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가 중국과 같은 틈새시장물색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수단·이란 같은 나라는 양국으로부터 공히 투자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인도의 장기 석유·가스 안보전략은 석유공급 안보전략과 대외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석유·가스 공기업들에게 해외 투자 및 견고한 연대구축을 장려하는 한편 유망 대상국으로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아프리카 등을 예시하고 있다. 즉 시장구매나 장기공급계약보다 공급원 소유가 석유공급안보에 유리하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정부의 또 다른 전략은 제휴전략이다.

첫째,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있다. 인도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에 필적할 만한 세계적 규모의 석유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중국과의 국경분쟁 합의, 양자간 교역규모 확대(2008년까지 200억불 목표),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시아 석유수입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있다. 그 예가 제1차 석유·가스경제 지역협력 아시아장관원탁회의(First Round Table of Asian Ministers o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Oil and Gas Economy)이다. 인도정부는 석유 수입국간의 공동구매전략 부재가 석유가격 양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아시아지역 석유 수입국들 간에 석유 구매협상 결속력을 조성하고자 동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인도는 동 회의를 통하여 본래 의도를 온전히 관철할 수 없었으나 동 원탁회의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인도가 추구하는 에너지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공급 제약과 경제성장 지속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의 장기적 유효성, 인도-중국간 에너지협력관계의 방향, 세계 에너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은 불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국가의 해외투자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자산취득 경쟁을 촉발시켜 입찰가격을 높일 수 있으며, 테러관련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무거져 래와 연계될 경우 기존 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